

숫자 2,000으로 바라본 바다, 사람, 그리고 동남권

김 원 상
청주 시민

I. 들어가는 말

2,000이라는 숫자는 재미있는 숫자이다. 그것은 21세기를 상징하는 숫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지난 1,000대의 숫자 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숫자이다. 2,00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는 것은 부·울·경의 동남권에서 이 숫자와 관계가 무척 많아서 그렇다. 2,000에 주목하여 동남권을 살펴본다.

II. 부산과 2,000

1. 부산항

부산은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곳이다. 어쩌면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해도 좋겠다. 특히 광안대교와 동서고가로처럼 부산의 주요 도로에서는 정말 잘 보이는 것이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이다. 컨테이너는 부산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먹거리로 꾸준히 자리매김해 왔다.

이렇게 세계와의 소통을 온갖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선택해서 집중한 부산항이다. 그렇게 컨테이너를 처리한 것이 어느새 연간 2,000만 개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수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비록 일본에 강제로 개항 당한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딛고 세계적인 항구로 우뚝 섰다. 또한 주변의 중국 항구의 거센 성장 속에서 꽃피운 성과여서 무척 의미가 있다.¹⁾ 부산항은 부산의 바다를 먹여 살린 대표 먹거리로 성장해

1)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항구 가운데 7개가 중화권에 있다.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상하이가 가장 크고 닝보-저우산이 있다. 북쪽으로는 텐진과 칭다오가 있고 남쪽으로는 광저우와 선전과 홍콩이 있다. 여기에 지리적으로만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싱가포르까지 하면 세계의 항구는 중화권이 잡고 있다.

왔다. 거친 바다를 먹거리 삼아 일하는 항구의 노동자들이
오늘의 부산을 있게 했다.

2. 롯데 자이언츠

부산은 스포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야구에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대표적이고 여기서 최동원과 이대호라는
영구결번 스타가 활동했다. 축구에서는 과거 대우 시절 안
정환이라는 판타지스타가 활동했다. 역시 농구에서는 과거
기아 시절 허재와 김유택이라는 슈퍼스타가 활동했다. 따라
서 부산은 구도(球都)이다.

여기서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의 활력을 독특히 제공하는
야구단이다. 수도권 야구단을 제외하면 2,000만 명의 홈 관
중을 동원한 경우는 롯데 자이언츠뿐이다.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의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이다.
그래서 부산을 구도(球都)라고 하는 것이다. 롯데 자이언츠
는 부산의 4번 타자이다.

3. 부산의 2,000의 의미

부산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컨테이너가 있다. 그리고 매
우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롯데 자이언츠가 있어서 가장 역동
적인 지역이다. 그래서 도시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도 ‘다
이내믹 부산(Dynamic Busan)’이었다. 2,000만 개의 컨테

이너 처리와 2,000만 명의 홈 관중을 동원한 부산의 역동성은 가공할 수준이다.

Ⅲ. 울산과 2,000

울산은 시내를 다닐 때마다 특히 북구와 동구에서 현대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울산시를 현대시(現代市)라고 할 만큼 현대와 무척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울산을 대표하는 회사,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먼저 울산을 먹여살린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여살린 국가대표 회사로 거듭났다.

1. 현대자동차

이렇게 무겁고 두껍고 길고 커다란 자동차산업을 일으킨 현대자동차이다. 여기를 포함한 그룹 전체가 미국 진출 이래로 2,000만 대를 판매하는 대기록을 썼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산차 포니를 생산한 이래로 꾸준히 미국을 두드린 결과 이룬 것이어서 무척 의미가 있다.²⁾ 현대자동차는 국가대표 자동차가 되었다.

2) 알다시피 미국은 그야말로 자동차의 나라이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커서 특히 작은 도시의 경우는 거의 자동차로 생활할 정도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들도 많다. 미국에게 자동차는 생활의 일부이면서 국가대표 상품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미국 진출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2. 현대중공업

역시 무겁고 두껍고 길고 커다란 조선산업을 일으킨 현대중공업이다.³⁾ 여기서는 최초의 선박이라는 애틀랜틱-배런호를 건조한 이래로 2,000척을 넘게 건조했다. 여기에 선박을 움직이는 대형 엔진 생산도 2억 마력을 넘어섰다. 현대중공업은 힘센 엔진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박이 되었다.

3. 울산에서 2,000의 의미

2,000만 대의 자동차 판매 기록과 2,000척의 선박 건조 달성에는 울산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이 있었다. 이들의 피가 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이 스며있는 제조과정을 통해 오늘의 살림살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들의 산업현장에서의 치열한 피땀눈물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노동의 대표적인 역사라고 해도 좋겠다.

2,000만 대 판매와 2,000척 건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도 있다. 무겁고 두껍고 길고 커다란 자동차와 선박을 만들기 위해 부품·기자재가 들어간다. 이렇게 소재·부품·장비의

3) 조선소에 뛰어들 때 500원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수백 년 전에 선박을 건조했다고 알려준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그렇게 해서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한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박 건조 회사가 되었다. 정부가 인정한 세계일류상품이 30개가 넘는 국가대표 회사이다.

뿌리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울산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울산 내부의 공장들과 인접한 부산과 경남의 공장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IV. 경남과 2,000

경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부산과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을 탄생시킨 지역이다. 이들 지역과의 활발한 이동을 통한 교류는 동남권을 역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중교통이 수도권권을 제외하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의 기종점이 다수 위치하니까 특히 철도와 버스가 활발하게 다니는 것이다.

1. 2000번 버스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는 좌석버스 2000번도 있다. 해안순환도로의 최서단에 있는 거가대교를 지나가는 버스로 달리는 2000번이다. 여기를 통해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의 출퇴근이 잦고 매미성을 비롯한 거제의 관광지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 그만큼 2000번은 거제와 부산을 이어주는 대표 버스가 되었다.

비록 2000번 버스로 그때까지 있었던 여객선이 사라지는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나 거가대교를 통해 새로운 이동 방법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어찌면 더 많은 시민들이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좋은 수단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2000번 버스는 거제와 부산의 바다를 보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2. 노무현 대통령과 동남권 정치

김해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전국구 정치인이 된 것도 2000년대 이후이다. 물론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청문회로 이름을 알리셨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전국구 정치인이 된 것은 아무래도 2000년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으로 계실 때 가장 활동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신 대통령으로 기억한다. 이때부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졌다. 노사모로 대표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덤이 상징적이다. 그래서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으로 민주주의였다.

경남을 포함한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역이다. 단일 세력을 유지할 만큼 강력했던 김

영삼 대통령의 상도동계가 대표적이다.⁴⁾ 다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사모와 문팬이 있다.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해서 진보정당의 활동 또한 매우 적극적이다. 동남권은 정치의 역동성이 가장 활발하다.

V. 맺는말

바다와 사람과 부산을 주제로 쓰다 보니 바다와 사람은 그대로이다. 그러나 부산을 생각하니 숫자 2,000과 연관 지어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인접한 울산과 경남까지 아우르자고 하여 이렇게 쓴다. 그렇게 해서 동남권 전체를 생각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본다. 숫자 2,000을 통해 동남권의 긴밀한 연대를 기대해 본다. **인부세상**

4) 김동영, 최형우, 박관용으로 대표되는 상도동계 만형 정치인이 있다.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 한 든든한 우군이였다. 여기에 정의화, 권철현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키즈들이 등장하면서 상도동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부울경의 동남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렸다.